2) 단골판

단골판은 일정 지역에서 일정한 무당만이 무의를 할 수 있다는 단골들의 내규다. 해당 단골은 그 지역에서 사제자 역할을 하며, 춘추로 전곡을 받았고 필요할 때는 그것을 매매하기도 했다.

이 지역에도 한국전쟁 무렵까지는 단골판이 남아 있었다. 이때까지는 각 단골들이 관장하는 자기 고유의 판이 있어서 단골집에서 봄・가을에 현물보수로 받는 동냥의 관행이 지켜졌으며, 단골판을 사고 파는 관행도 행해졌다. 단골판 내의 신도들은 단골에게 종교적으로 의존하고 단골의 가계는 신도들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받았다. 동냥으로 거두어들인 양은 판마다 다르지만 보리 7~8가마, 쌀 7~8가마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씻김굿 같은 무의를 해주고 나서는 '쏙쇠'라고 부르는 현물보수를 받았다. 쏙쇠는 부자들의 경우 쌀 서너 가마를 냈으며, 보통 사람들은 한 가마 정도를 냈다고 한다. 이러한 동냥이나 쏙쇠의 양은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훨씬 적은 양을 받았다고 한다.

단골이 단골판 내의 신도들에게 해주는 종교적 의례들은 수시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정월의 신수독경, 애기 나을 때 하는 푸념이나 삼신풀이, 자녀들이 결혼할 때의 살맥이 등이다. 다른 단골이 맡고 있는 판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단골이 들어가서 무의를 할 수 없었다. 단골판의 소유권이 인정되었으며, 다른 단골에게 팔아 넘길 수도 있었다. 이러한 단골판의 거래는 최근까지도 이루어졌는데, 김순태가 1961년에 옥천동에서 나와 오룡으로 이사올 때 오룡의 단골판을 샀다.

단골판이 유지되던 1950년대 당시 순천시 내에 있던 단골판을 보면 다음과 같다. 김순태가 기억하는 당시의 상황이다.

① 김씨 단골판 : 김해 김씨 김세원의 판이다. 지금의 옥천동과 인제동 일부(남초등학교 근처), 역골, 용수동지역을 맡았다. 현재 순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당 김순태가 9세 때 그의 부친이 판을 사서 들어갔다. 당시 자식도 없고 연로한 노인이 판을 팔았는데 그것을 사서 들어간 것이라고 한다.

② 서씨 단골판 : 달성 서씨로 이름은 알 수 없다. 남정동과 인제동(남문 다리에서 순천고등학교 부근까지) 지역을 맡았다.

③ 서씨 단골판 : 위 서씨의 형이다. 역시 이름은 알 수 없다. 금곡동지역을 맡고 있었다.

④ 이씨 단골판 : 전주 이씨로 이름은 알 수 없다. 중앙동과 인제동 일부(큰길 아래), 시청앞, 풍덕동 등지를 맡고 있었다.

⑤ 선씨 단골판 : 창녕 선씨로 이름은 알 수 없다. 매곡동과 행동 일대를 맡고 있었다.

⑥ 이씨 단골판 : 전주 이씨로 이름은 알 수 없다. 앞의 이씨와 친척 관계는 아니다. 덕암동과 역전 부근 그리고 생목동을 맡고 있었다.

⑦ 김씨 단골판 : 앞의 김씨와 친척 관계는 아니다. 석현동 일대를 맡았다.